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학교 가까이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 다운타운까지 쉽게 오갈 수 있었던 만큼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고, 학교 규모는 우리학교 정도로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 또한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추고 있어 불편함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 주에는 밴쿠버 교통관련 내용과 홈스테이 생활, 영어 표현 등에 중점을 두어 수업해주시고, 둘째 주에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 등 문화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수업해주시고, 마지막 주에는 글로벌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수업해 주십니다. 중간중간 오후수업이 프리인 날도 있고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밴쿠버 명소에 함께 가서 수업하는 날도 있어 별로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도 거의 학교에서 하던 영어회화 수업과 비슷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제는 생각보다 자주 내주셔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준비는 과제를 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짝공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제를 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그랜빌아일랜드, 컬링수업, 밴쿠버 박물관,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랜빌아일랜드, 박물관, 아쿠아리움에 갈 때에는 그 곳에서 알아보아야 할 내용과 관련된 미션지가 있어 활동지 채우는 과제가 있었고, 컬링과 서스펜션 브릿지 갈 때에는 특별히 해</p>

	<p>야하는 과제가 없어 부담감 없이 주어진 시간동안 즐기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야 했고, 일정 변경 메일을 보지 못해 컬링 수업을 하는 날 치마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컬링수업이 있을 때에는 장갑과 따뜻한 양말 준비하고 꼭 옷 편하고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곳에서 뭘 사먹거나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추가비용은 없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벤투버 겨울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흐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날이 맑은 날이 별로 없고, 이번에는 정말 흔하지 않게 첫주에 눈이 정말 많이 와 하루는 휴교했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고 제대로 즐기려면 되도록 여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해가 정말 빨리 저서 오후 5시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홈스테이 집이 꽤 외진 곳에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다운타운에 돌아다닐 때면 마리화나 냄새가 자주 났고, 노숙자들이 길가에 꽤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이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를 처음 해보다보니, 처음에는 많은 기대감과 부푼 감정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롭고 좋았는데, 계속해서 지내다보니 학교까지의 거리가 45분정도 된다는 점, 홈스테이하는 학생이 저를 포함해 3명이 있어 함께 한 욕실을 사용해야 했던 점, 음식을 배식해주셨는데 음식이 잘 맞지 않고 양이 많아 가끔 남길 때 흠뻑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점들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규칙들은 지킬 만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에는 아침에 홈스테이 집에서 챙겨주시는 런치박스 챙겨와서 점심 해결했고, 저녁만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맛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아침은 늦게 일어나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는 거의 나가서 먹었습니다.</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학교에서 첫날에 알려주시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사	300,000	
쇼핑	600,000	
합계	9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밴쿠버는 겨울에 날씨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여름에 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홈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커 처음에는 홈스테이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글로벌빌리지 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영어 스피킹을 직접 해보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서로 더 친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3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학교 친구들이 너무 좋아 정말 재미있고 알차게 짧은 기간 즐기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어말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홈스테이 친구에게 다음에 한국에

놀러오면 꼭 연락하라고 해서 앞으로 꼭 영어스피킹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고, 우선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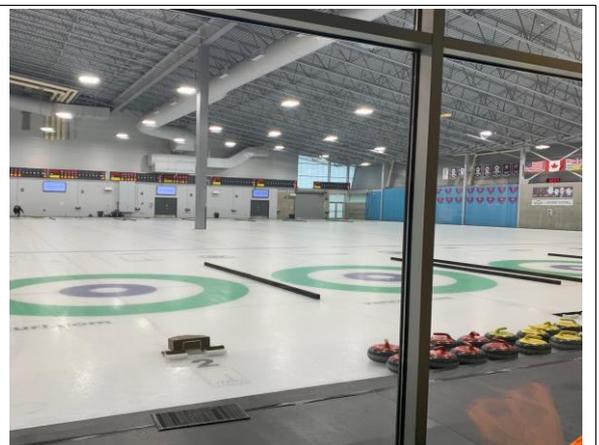
dae-ji 라는 한국음식점 김치볶음밥, cactus club café 스테이크, jam café, 홍대포차와 카페, 그랜빌아일랜드에서 stuartsbaker리 뉴욕치즈케익 그리고 클램차우더 스프, fritz 푸틴, 워터프론트 역 바로 옆 steam works 맥주, steveston pizza company 랍스터피자, the keg steakhous x bar, 사무라이 스시 정말 추천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빌려서 seawall따라 스탠리파크 돌아보는 거 꼭 하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잊지못할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잉글리시베이가 정말 예뻐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폭설로 휴교한 날



컬링수업



그랜빌 아일랜드



그랜빌 아일랜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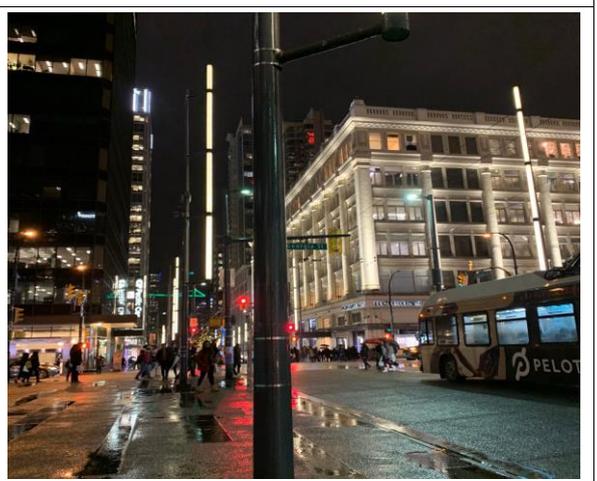
캐나다 플레이스



스탠리 파크



자전거 타면서 본 잉글리시베이 풍경



다운타운 저녁풍경



가스타운



객터스 클럽



잼카페



스테베스톤 피자컴퍼니 랍스터 피자